

하루를 시작하며



권 희 진
디어마이블루 서점 대표

오는 11월로 다가온 도서정가제 개정 시한을 앞두고 출판계가 안팎으로 시끄럽다. ‘도서정가제’는 책값의 과도한 할인을 규제해 자본력 있는 대형 서점이나 온라인 서점뿐만 아니라 중소 규모의 서점이나 동네책방들도 같은 조건에서 책을 팔 수 있도록 한 제도로서, 건강하고 다양한 출판 생태계 유지를 위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작년 10월 “지식 전달의 매체로서 책은 언제나 구할 수 있는 곳에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돼야 한다”라며 도서정가제의 폐지를 주장하는

책이 문화 공공재인 이유

국민 청원이 올라와 한 달여 만에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서 도서정가제 폐지 논란이 불붙게 됐다.

찬반 논란의 다른 부분은 다 차치하고 한 가지만 분명히 하자면, 도서정가제는 단순히 중소 서점이나 동네책방의 생존을 위해서만 유지돼야 하는 제도가 아니라는 점이다. 도서정가제 폐지를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미국이나 영국에는 도서정가제가 없어 자유 할인 경쟁이 가능하다는 점을 반박 이유로 들고 있는데, 실제로 OECD 가입국가 중 도서정가제를 시행하는 나라는 프랑스, 독일, 스페인, 그리스, 네덜란드, 이탈리아, 포르투갈, 일본 등 16개 국가뿐이다. 이유는 무엇일까?

영미권 국가들은 도서정가제가 필요 없다. 어차피 전 세계가 마켓이기 때문이다. 즉 도서정가제는 소수 언어권의 문화를 보호, 육성하기 위한 측면과 자국의 출판문화가 자본주의

논리에 침식당해 양질의 콘텐츠를 생산할 수 없는 환경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이기도 한 것이다. 특히 출판 산업을 지탱해줄 수 있는 시장 규모가 너무나도 협소(우리나라 1인당 월 평균 독서량은 도서정가제 시행 전 0.8권, 시행 한참 후인 2018년 기준 0.69권으로 책값이 싸든 비싸든 출판 시장의 전체 규모는 실제 큰 변화가 없다. 부끄럽게도 우리나라는 늘 세계에서 책의 판매가 단순히 책 한 권의 판매라는 의미보다 훨씬 더 크다. 독자들이 책을 적당한 가격으로 구입한다는 것은 저자 개인의 창조적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함과 동시에 오랜 시간 국어를 공부하고 제대로 다뤄 책을 만들어내는 전문 인력의 유지와 지속적으로 출판사들

이 양질의 출판 콘텐츠를 개발, 생산할 수 있도록 돕는 선순환적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훨씬 더 중요하고 큰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국가 지원이나 공공도서관의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그나마 우리말과 글로 다양한 우리의 문화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는 수많은 작가와 콘텐츠 생산자들을 제대로 보호하고, 그걸 양질의 책이라는 형태로 후대에 남겨주기 위해 현실적으로 도서정가제보다 더 나은 정책적 대안은 없다. 시장이 이렇게까지 된 데에는 절대로 단순하지 않은, 고질적으로 쌓여온 여러 문제들이 있고 그 문제들은 정부와 업계가 앞으로 계속 노력해서 풀어나가야 할 부분이다.

책은 저렴한 가격이 아닌 적절한 가격에 공급돼야 한다. 나무보다 숲을 볼 줄 아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길 바란다.

사설

연속 3개 태풍 강타, 피해복구 신속해야

제주지역에 강력한 태풍 3개가 전례없이 휘몰아쳐 큰 피해를 냈습니다. 지난달 26일 제8호 태풍 ‘바비’에 이어 이달 2일 9호 ‘타이삭’, 7일엔 10호 ‘하이선’이 연속해서 강풍에다 폭우를 뿌린 결과입니다. 현재 정확한 최종 상황은 집계중이지만 피해복구를 위한 신속한 인적·물적 지원이 절실합니다.

올 태풍 피해는 8월 중하순 파종 직후인 월동채소에 집중됐습니다. 농경지 침수와 농작물 피해 등의 경우 바비 내습시 300여ha, 타이삭 내습시 1255ha로 집계된 데 이어 하이선 피해를 추가하면 더 늘어날게 확실시 됩니다. 주로 양배추, 비트, 콜라비와 당근 등의 경우 초기 생육단계에 태풍 직격탄을 맞아 파종과 정식후 뿌리지거나 침수피해를 입었고, 대체작물도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

해상가두리와 육상 등 양식업계 피해도 만만찮습니다. 하우스철골 구조물이 강풍으로 완파되거나 수

조에 흠탕물이 유입되며 양식중인 전례없이 휘몰아쳐 큰 피해를 냈습니다. 일부 지역의 가옥침수에서부터 선박, 차량, 간판, 지붕, 건물 외벽, 태양광패널, 창문, 공사자재 등 수많은 피해사례들도 있습니다. 공공시설인 가로수, 신호등, 중앙분리대, 가로등, 전신주 등 피해건수도 300건에 육박할 만큼 상당합니다. 강풍에 고압선이 끊기면서 4만여가구 이상 정전상태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이제 민·관이 합쳐 태풍피해 복구에 총력을 기울일 때입니다. 행정이 태풍피해 사례별로 장기적인 피해방지 대책 마련과 함께 인력·장비지원에 주도적으로 나서고 농작물 피해지역에 대한 신속한 복구지원을 벌여야 합니다. 각 민간단체들도 가능한 자원봉사 등에서 심시일반 피해복구에 동참할길 기대합니다.

태풍피해 도민들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추석명절엔 웃음을 되찾을 수 있게 힘을 모아야 합니다.

환경보전기여금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

사람이 많이 몰리다보면 탈나게 마련입니다. 제주지역도 관광객이 크게 늘면서 여러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각종 폐기물이 쌓이고 교통난이 심각한 지경입니다. 그래서 청정제주를 지키기 위해 환경보전기여금제 도입이 추진된 겁니다. 환경보전기여금은 제주도가 환경자산 이용자(수혜자)에게 환경보전 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동안 진척이 없던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이 다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제주도는 이달 중 ‘환경보전기여금제 도입을 위한 공감대 확산 사업’ 대행기관인 제주국제컨벤션센터와 사업 추진방향에 대해 본격 논의할 방침입니다. 공감대 확산사업은 환경보전기여금에 대한 국민 인식 확산 필요성에 따라 올해 도민·국민 설명회를 비롯 세 마나 등을 추진하게 됩니다. 제주도는 올해 하반기 중 도민설명회를 목표로 개최 시기와 방법 등을 대행기관과 논의할 계획입니다.

앞서 제주도는 2018년 12월 도민 설명회를 열 예정이었지만 무기한 연기된 바 있습니다. 제주도는 우선 이달 중 환경보전기여금제 도입 홍보 동영상 통해 전국민 공감대 확산에 나설 예정입니다.

환경보전기여금제 도입에 대한 논의는 오래전부터 이뤄졌습니다.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갈 정도로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는 사이 제주는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고 미리 이에 대비한 것도 아닙니다. 이미 제주는 환경기초시설이 과부하에 걸린지 오래됐습니다. 이렇다 제주가 환경오염으로 전면 폐쇄됐던 필리핀 보라카이섬처럼 될지도 모릅니다. 제주는 국제사회가 인정한 세계인의 보물섬입니다. 생물권보전지역·세계자연유산·세계지질공원 등 세계 유일의 유네스코 자연과학분야 3관왕을 보유하고 있잖습니까. 제주자연을 사수하기 위한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입니다.

열린마당

성묘 및 벌초 시 벌 쏘임 주의하세요



이 진 한
서귀포소방서 안덕119센터

정부는 추석 연휴기간을 코로나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하는 수준을 적용해 성묘, 벌초 등과 관련한 이동자제를 국민에게 권고했다. 그래서 예년보다는 다소 줄기는 하겠지만 음력 초하루 즈음 벌초를 하는 문화가 강한 제주도에서는 벌초를 떠나는 도민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돼 안전사고 발생이 염려된다.

사실 매년 이맘때에는 벌초로 인한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는다. 제주 소방본부의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예초기 34건, 뱀물림 42건, 벌쏘임 92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이 중에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만 어

지럼증, 호흡곤란, 경련 등 전신성 과민반응(아나필락시스)이 나타나 생명을 위협하는 벌쏘임 사고의 예방 및 대처법을 알아보려고 한다.

예방법을 살펴보면 첫째, 벌들은 어두운색에 공격성을 보임으로 성묘나 벌초 시에는 흰색 계열의 옷을 입고, 향이 강한 향수, 화장품은 벌을 자극할 수 있으므로 자제해야 한다.

둘째, 벌에 쏘였을 때의 대처법이다. 우선 벌에 쏘인 장소에서 최대한 멀리 이동하고 벌에 쏘인 부위를 심장보다 낮게 해 독소가 심장까지 가는 속도를 늦춰야 한다. 그리고 가능하면 신용카드 같은 도구로 박힌 벌침을 제거한 후 비누와 물로 씻고 아이스팩 등을 이용해 붓증을 줄여야 한다. 만약 심한 증상이 나타나면 119로 신고해 신속한 응급처치를 받아야 한다.

끝으로 최근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됐지만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벌초는 절대 혼자해서는 안되고 항상 자신의 위치를 확인해 119에 연락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

뉴스-in

도·의회 상설정책협의회 이번엔 열리나

예산안 편성 등 안건 조율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의회가 상설정책협의회 개최를 추진하고 있어 귀추 주목.

8일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10일 도의회 주관으로 협의회가 열릴 예정인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 편성 관련 및 ‘제주형 뉴딜’ 등 안건을 조율 중.

앞서 지난 6월 11일 예고됐던 협의회는 도의회가 도의 ‘2회 추경계획’ 의제에 대해 공감하지 못하겠다는 불참 의사를 표명하면서 개최 2시간여를 앞두고 전격 무산.

오은지기자

화장실 손잡이 등 소독 강화

○…서귀포시가 최근 지역 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따라 공공기관 공중화장실·열린화장실 등에 대한 소독을 강화.

서귀포시는 지역 내 공중·열린 화장실 348곳을 대상으로 손잡

이, 세면대, 대·소변기 등에 대한 염소계 소독제 살포·소독을 강화하는 한편 코로나19 상황 종료시까지 특별소독을 지속키로 결정.

시 관계자는 “청결·안전한 공중화장실 이용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위생 상태를 점검·관리할 계획”이라고 설명. 현영종기자

민속축제 경연 여부 고심

○…제주예총 주최로 10월 7~11일 예정된 제59회 탐라문화제가 핵심 프로그램인 일반부 민속에 출품제를 놓고 고심 중.

그동안 결국, 민속예술 경연을 통해 제주 마을에 흩어진 전통문화유산을 발굴해왔는데 올해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행정이 참가팀들이 모여 연습이 불가능한 상황.

8일 화상으로 추진위원회의를 개최한 제주예총의 관계자는 “학생부 제주어 말하기대회, 민속예술축제 시연 등은 취소했다”면서 “일반부 방춤도 조만간 결정할 것”이라고 언급. 전선희기자

※ ‘오피니언’ 편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부 고

고영대(한마음식품 대표) 어머니 김해김씨 복순(향년 92세)께서 서기 2020년 9월 7일 14시 20분경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 ▶일 포: 2020년 9월 9일(수요일)
- ▶발인일시: 2020년 9월 10일(목요일) 오전 8시
- ▶발인장소: 하귀농협 장례식장 201호 분향실
- ▶장 지: 해안동 가족묘지

아들	고영대	며느리	장영숙
	승관		오영희
	승범		김종필
	영종		강이선
딸	고영애	사위	신경식
	정애	(배)	강산범
	정옥	(배)	김시호
	경희		김동준

※연락처 : 고영대 010-5166-7078
고승관 010-5324-3144
고승범 010-2689-4494
고영종 010-4662-7998

부 고

김훈영(유니지엘에스 대표) 아버지 안동김공 신희(향년 70세)께서 서기 2020년 9월 8일 07시 25분경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 ▶일 포: 2020년 9월 9일(수요일)
- ▶발인일시: 2020년 9월 10일(목요일) 오전 8시
- ▶발인장소: 하귀농협 장례식장 301호 분향실
- ▶장 지: 양지공원

아들	김훈영
며느리	고민경
딸	김세희
사위	소일승

※연락처 : 김훈영 010-4254-9741
소일승 010-7242-4530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어머니 진주강씨 남선(향년 74세) 상사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어오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20년 9월 9일

아들	김승언
며느리	강경미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어머니 군위오씨 순재(향년 97세) 상사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어오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20년 9월 9일

아들	강호준	며느리	김시자
장손	강기중		김수정
딸	강신자		
	복자		
	정자	사위	김정인
	행순		정희만
	필선		김동화

벌초

전문벌초 대행업체
직통 T. 010-3692-4898
사무실 713-4898

금매(운석)

- 감정가 : 20억원
- 매매가 : 2억원(절충)
- ※ 대물가능 ※

연락처
010-4855-6013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심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클
미국식품의약학회 SCI A급 등록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로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산지] 선홍2리 용암동굴계 거문포 일대지역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

방수 단열

우레탄
우레아
석주개발

☎ 712-3644, 782-3644
010-4690-3636